



## 금감원, 보험계약 유지율과 설계사 정착률 발표

이혜은 연구원

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「FY11 상반기(2011년 4~9월) 보험회사의 모집조직 및 판매채널 효율분석」에 따르면 보험업계의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부실판매와 철새설계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- 생명보험회사 초회보험료는 6조 3,590억 원으로 1조 3,914억 원 늘었고 손해보험회사 원수보험료도 28조 2,381억 원으로 3조 9,145억 원 증가함.
- 또한, 보험회사 임직원은 1,855명 늘어난 5만 7,449명, 전속설계사는 8,275명 증가한 22만 4,571명이고, 대리점은 1,265개 감소한 5만 551개임.
- 그린손보, 삼성화재, LIG손보 등 손해보험업계의 부실판매가 증가했으며, 가입자를 유치해 수당을 챙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‘철새설계사’는 라이나생명, 동부생명, 푸르덴셜생명 등 생명보험업계에서 많았음.

■ 또한, FY2011 상반기 16개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의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도 하락함.

-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새로 계약한 보험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의 비율을 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유지율이 높을수록 판매·유지가 잘 됐고, 낮을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크다고 해석됨.
- 손해보험업계의 유지율은 전년대비 1.5%p 하락한 79.0%를 기록함.
  - 유지율이 양호한 손해보험회사는 동부화재(82.3%), AXA(81.0%), 현대해상(80.7%)인 반면, 저조한 손해보험회사는 차티스(61.4%), ACE(68.0%), LIG손보(76.5%)임.
  - 특히, 그린손보(-3.8%p), 삼성화재(-2.5%p), LIG손보(-2.4%p), 메리츠화재(-2.2%p)의 유지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음.
- 생명보험업계 유지율은 1.8%p 상승한 79.1%로 나타났으며, 우리아비바(19.4%p), ACE(10.2%p), PCA(7.4%p)의 상승폭이 큰 편임.

- 유지율이 양호한 생명보험회사는 카디프(94.4%), 하나HSBC(90.3%), 푸르덴셜(87.0%)이며, 저조한 생명보험회사는 ACE(59.4%), 녹십자(68.8%), PCA(72.5%)임.

■ 철새설계사 비중을 보여주는 13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생명보험업계가 35.6%로 전년대비 0.8%p 상승한 반면, 손해보험업계는 0.3%p 하락한 46.6%를 기록함.

- 정착률이 낮을수록 철새설계사가 많아졌음을 뜻하고, 철새설계사의 증가는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계약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큼.
- 설계사 정착률이 양호한 생명보험회사는 메트라이프(59.5%), 대한(51.5%), 푸르덴셜(51.4%)인 반면, 저조한 생명보험회사는 하나HSBC(10.8%), ACE(10.9%), AIA(12.0%)임.
- 설계사 정착률이 양호한 손해보험회사는 LIG손보(50.7%), 현대해상(50.5%), 삼성화재(48.7%)이며, 저조한 손해보험회사는 ACE(32.1%), 한화손보(36.0%)임.
- 라이나(-7.9%p), 동부생명(-7.2%p), 푸르덴셜(-6.8%p), 미래에셋(-5.7%p), ACE(-5.7%p), 현대해상(-5.1%p)의 정착률 하락폭이 큰 편임.

■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광고에 대한 소비자 사전평가와 보험안내자료의 소비자 이해도 평가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스스로 효율성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유도함.

- 소비자 평가단이 사전에 광고를 보고 약관의 보상내용 등과 다르게 이해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내용을 수정하며, 보험광고 심의 시 평가결과를 활용할 계획임.
- 또한 효율성 분석결과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임.

(금감원 보도자료 등, 12/15)